

300면 백혈병 환자 한 명 살려

생명나눔 부산본부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치료비 사업 등을 펼쳐온 생명나눔실천 부산 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동명대에서 3월 17~18일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

2007년 시작된 4년째를 맞은 이번 캠페인에는 2010학년도 신설된 동명대 불교학과 신입생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동참해 교내 곳곳에서 보시행을 실천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차후 부산지역 동명대, 부경대, 동아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년 총 7자에 걸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 캠페인에서 504명, 2008년 9차 903명, 2009년 10차 633명 등 1740여 명이 이르는 기증 희망자를 모았다.

조혈모세포의 기증은 단 30cc의 혈액만으로도 백혈병환자 한 사람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하고 부정적 인식이 많아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원범 본부는 “앞으로 타 대학교에서도 진행될 캠페인에 많은 학생들이 동참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변화되기를 바란다”며 “고통 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큰 힘이 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51) 853-0429

박지원 기자

제2의 인생 여는 기회

용호복지관 2010 노인일자리사업 발대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213명에게 든든한 일자리가 생겼다. 65세부터 80대에 이르는 이들의 제2 전성기는 지금부터다.

사회복지법인 불국대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3월 16일 복지관 내 2층 강당에서 '2010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 213명은 1년간 지역 사회 내에서 어르신만이 가진 연륜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손길을 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통정리 및 환경정화, 우범지역 순찰 등 4개 사업영역에서 진행된다.

어르신들은 '실버아이사랑사업단'에 파견돼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노·노 케어단'에 파견되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복지관 치매노인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 '출산육아가정도우미'에 파견될 어르신들은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육아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비용 및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어르신들은 '은빛강사단'으로 구성돼 지역 내 교육기관에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발휘하게 된다.

이춘성 관장은 “이번 사업이 참여자들의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참여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051)628-6737

박지원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부산지사 : (051)632-0064

책 옆에 두고 수행 방편으로

부산 영광도서 김윤환 대표... “불서는 자아성찰 총족”

3월 11일 원적에 든 법정 스님은 유언에서 “그동안 풀어 놓은 말뭉치를 다들 생으로 가져가지 말라.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언이 전해지자 스님의 책마다 유례없는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법정 스님의 법랑을 조금이라도 간직하려는 이들로 인해, 교보문고는 5배 이상 도서판매율이 증가했고, 인터넷파크도서의 경우 베스트셀러 1~3위를 스님의 저서인 <무소유> <일기일화> <아름다운 마무리>가 차지했다.

“법정 스님 효과”는 20여 종의 스님 저서를 넘어서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을 통해 스님이 즐겨 읽던 책과 함께 행복서적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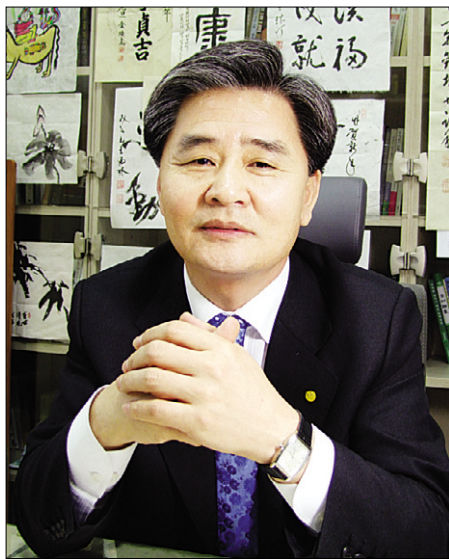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부산 불교서적 유통의 중심인 영광도서 김윤환 대표(사진)를 만나 불교도서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불자 여부를 떠나 대중의 불교 서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전 및 스님을 위한 교재 위주의 어려웠던 불교서적이, 종교교인 책을 허물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기계발서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출간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지 않는 불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영광도서는 올해 창립 41주년을 맞았다. 김윤환 대표(부산시불교사업인회장은) “전국 유명서적은 마진이 많이 남는 서적을 매대에 주로 비치해 법정 스님 저서의 품귀현상에 유난히 반응한다”며 “입적과 관련한 언론의 집중조명으로 대중의 관심이 쏠리면서 향후 스님의 책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김윤환 대표는 “저자의 특정 종교에 대한 개념보다는 정신문화적 차원에서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독자들

들을 움직이고 있다”며 “불교서적은 진리와 자비가 바탕이 돼 있어,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 앞만 보고 달려온 현대인에게 스스로를 성찰하며 허전함을 충족시켜주고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읽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책상 정리정돈부터 하게 되면 정작 독서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30초, 1분 남짓의 여유에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30초라는 짧은 시간동안에도 책 한 페이지 이상을 읽을 수 있고, 30초 독서의 습관은 독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다.

영광도서의 매장 중심에는 종교 서적 코너가 있다. 그곳에는 다른 서점에서 인기에 판매되는 일반 베스트셀러 혹은 마진이 많은 서적이 아닌 불교,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 등 4대 종교 서적이 비치돼 있다.

김윤환 대표는 “종교 서적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행복한 삶을 알려주는 표본이자 지침서”라며 “40여 년 전에는 이웃종교에 비해 불자들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책이 극히 드물어 불교 서적을 수소문해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불교 서적이 많아지면서 잡담 때까지 가슴에 품고 싶은 불자들을 만날 때마다 환희심에 벅차 올랐다”고 회상했다.

향간에 ‘불립문자(不立文字)’에 얽매어 문자로써 가르침을 얻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이는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일 뿐, 수행의 한 방편인 불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살면서 즐거울 때는 웃으면 되지, 슬플 때는 울고 있을 수만은 없지요. 그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는 책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꼬이니까 하는 거야?’라며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며,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 화를 푸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책은 결국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약이 되고, 책 속에 분명히 길이 있는데 어떻게 책, 그리고 불서를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지원 기자

김윤환 대표는 “종교 서적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행복한 삶을 알려주는 표본이자 지침서”라며 “40여 년 전에는 이웃종교에 비해 불자들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책이 극히 드물어 불교 서적을 수소문해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불교 서적이 많아지면서 잡담 때까지 가슴에 품고 싶은 불자들을 만날 때마다 환희심에 벅차 올랐다”고 회상했다.

향간에 ‘불립문자(不立文字)’에 얽매어 문자로써 가르침을 얻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이는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일 뿐, 수행의 한 방편인 불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살면서 즐거울 때는 웃으면 되지, 슬플 때는 울고 있을 수만은 없지요. 그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는 책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꼬이니까 하는 거야?’라며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며,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 화를 푸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책은 결국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약이 되고, 책 속에 분명히 길이 있는데 어떻게 책, 그리고 불서를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지원 기자

책 판매대금 아이티·칠레로

진제 스님 네 번째 법문집 ‘石人...’ 출간



진제 스님이 해운정사에서 출판기념법회를 하고 있다.

아이티·칠레 지진 피해 구제를 위한 진제 스님의 출판기념식이 봉행됐다.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3월 16일 진제 스님의 네 번째 법문집 <石人은 물을 길고 木女는 꽃을 따네>의 출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간된 <石人은 물을 길고 木女는 꽃을 따네>에는 진제 스님이 다년간 국내 주요 언론사와 나는 심도 깊은 대담과 철마다 전국 참선수행자들에게 내린 상당법문(上堂法門), 제1회 국제무차선대법회의의 법문 등이 수록됐다.

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직 선향(禪香)이 천리마리 흘러가기를 바랄 뿐, 이 법어집을 접하는 이들과다 선의 향기에 흠뻑 취하고 진리의 참맛을 누리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극락정토가 지금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며 “아이티와 칠레 대지진 참사지역의 난민들과 국내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마음을 일으켜, 위기를 극복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으고 선업을 회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허원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법문집 속에는 상당법어와 대선지식들과의 법담과 문답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참선법과 ‘참나’를 돌아볼 기회를 주셨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은 스님, 대구 동화사 주지 허은 스님,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부산시불교신도연합회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진제 스님의 새 법문집 출간을 축하하고, 아이티·칠레 난민 구호기금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 당일 책 판매대금 1500만원은 아이티·칠레 난민을 위한 구호성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범어사·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4월 18~20일, 26~28일 봉행

4월 부산·경남지역 조계종 교구 본사인 범어사와 통도사에서 경인년 보살계를 수계하는 아단법석이 펼쳐진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 055-382-7182)는 4월 18~20일 금강계단에서 해남 스님을 전계사로 경인년 금강계단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어, 051-508-3636)는 4월 26~28일 금강계단에서 흥교 스님을 전계사로 제

110회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보살계는 대승보살이 받아 지니는 계율로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經戒)를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보살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경전에 따르면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1.개금불



1.비취옥불



1.백옥불



1.대나무숯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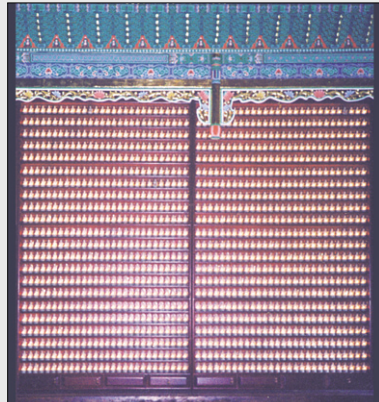
1.대나무숯불

- 규격: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내)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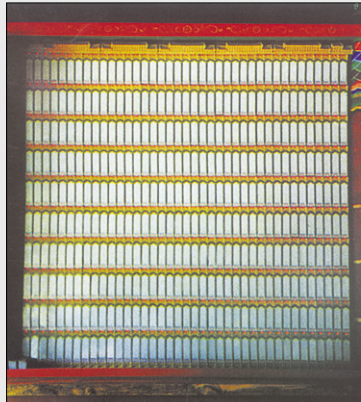
-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옥촛대, 연등전선 시공.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1.LED인등 (해남 대흥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1.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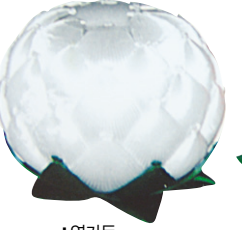
정우불교 예술원



1.공단동



1.바리동



1.영가동



1.금동

正宇 불교 예술원 (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산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